

2022 문화계 결산 <1>미술

‘조르주 루오’ 전·‘이건희 컬렉션’...대형 전시 잇따라 개최

코로나 19로 2년간 주춤했던 지역 문화계는 올해 서서히 기지개를 켜며 다채로운 행사를 이어갔다. 올해 문화계 이모저모를 미술, 공연, 문학, 문화재 등 4차례로 나눠 결산한다.

올해 광주는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행사는 열리지 않았지만 루오전, 이건희 컬렉션 등 지역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대형 전시가 잇따라 개최돼 미술 애호가들을 즐겁게 했다. 또 유네스코 지정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도 문을 열었다.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조르주 루오’ (9월 16일-2023년 1월 29일)는 세계적인 거장 조르주 루오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대규모 기획전이다. 전시에는 프랑스 국립 퐁피두센터와 조르주 루오 재단에서 엄선한 200여 점의 유화·판화·드로잉·스테인드글라스·타피스트리 등 다양한 작품이 나왔다.

또 이중섭·구본웅·김재형 등 루오의 영향을 받은 작품을 만나는 연계전시 ‘조르주 루오와 한국미술: 시선 공명’ 전도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시선을 선사했다.

고 이건희 회장 기증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전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던 동명의 전시를 바탕으로 기획한 전시로 첫 지역 순회전이었다. 이번 전시에는 10월 한달간 관람객을 만난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김홍도의 ‘추성부도’를 비롯해 도자, 회화, 불교공예품 등 옛 미술품 170건 271점이 나왔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이건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사람의 향기, 예술로 남다’전은 한국미술의 ‘다양한 표정’을 만나는 전시로 국립현대미술관(50점), 광주시립미술관(30점)이 소장하고 있는 93점이 나왔다. 참여작가는 박수근·이중섭

미디어아트플랫폼 G.MAP 개관 도립미술관서 리움미술관 순회전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30주년 광주오월미술 ‘피와 눈물’ 뉴욕전

·김환기·이인성·장욱진·이응노·오지호·천경자·허백련·유영국·신학철 등 40여 명이었다.

지난 1992년 전국 최초의 공립미술관으로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은 개관 3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전시를 진행했다.

권진규(1922-1973)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 ‘영원을 빛은, 권진규’전은 ‘지원의 얼굴’ 등 대표작품 120여 점과 아카이브와 드로잉 50여 점, 작가가 탐독했던 책을 통해 작품 변천 과정과 특징 등을 보여줘 볼 수 있는 기획전이었다.

‘미래의 역사쓰기: ZKM 베스트 컬렉션’전은 독일 칼스루에의 ‘예술과 미디어센터’(ZKM-Center for Art and Media)와 공동주최·제작한 대형 프로젝트로 ZKM 소장품을 대표하는 작가 64명의 주요 작품 95점을 선보였다.

그밖에 ‘색채의 마술사, 임직순 탄생 100주년 기념전’, 실험영화 거장 요나스 메카스 탄생 100주년 기념 ‘요나스 메카스+백남준: 나의 친애하는 친구들에게 (To All My Dear Friends)’ 전도 이어졌다.

현대미술사(史)를 장식하는 스타급 작가들의 작



2022년 광주-전남에서는 다양한 미술행사가 열렸다. 지난 9월 개막해 내년 1월 29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조르주 루오’전 모습. /최현배 기자 choi@

품을 한 자리에서 선보인 ‘리움미술관 순회전’은 전남도립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을 만났다. ‘특별전에서는 조지 시겔의 조각 작품 ‘러시아워’(1983), 자코메티의 청동 조각 ‘거대한 여인III’(1960) 등 작가 40여 명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됐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이 지닌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미학적으로 재조명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전 ‘꽃 핀 쪽으로’(to where the flowers are blooming)를 222일간 세계적인 미술축제 베니스비엔날레가 열리는 베니스 스파지오 베를렌디전시장에서 개최했다. 특별전에는 카데르 아티아, 호 추 니엔 흥성담, 김창훈, 노순택, 박학연 등 국내외 작가 11명이 참여했다.

재단은 또 내년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

로 이숙경 영국 테이트모던 큐레이터를 선정했으며 전시 주제 ‘물처럼 부드럽게 여기게’를 확정했다. 세계 각국에서 80여 명 작가가 참여하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내년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94일간 개최된다.

광주 오월 미술은 세계적인 미술의 중심지 미국 뉴욕에서 선보였다. 지역 작가 19명이 참여한 ‘피와 눈물(Blood and Tears): 광주 민주화운동의 초상’전이 9월 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존 제이 형사 사범대학 ‘애나 앤 앤드류 슈바’ 미술관에서 열렸다. 전시에는 김경주·나경택·박기태·박소빈·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등이 참여했다.

이번 전시 기획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 큐레이터 현수정과 광주와 인연이 많은 존 제이 대

학 미술사 교수 탈리아브라호프포스가 맡았다.

미디어아트의 상징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지맵 Gwangju Media Art Platform)이 3월 개관한 것도 화제였다.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GMAP은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창작자와 전시, 교육 및 교류 공간으로 구성된다.

건물 외곽의 대형 미디어파사드(가로 53.8m×8.45m)에서는 브랜드 콘텐츠 ‘테크네 techne’를 비롯해 ‘Eternal Lights’, ‘Four Seasons, Memory’ 등 모두 7편을 상시 상영한다. 개관 기념 전으로는 국내외의 21개 작가(팀)이 참여해 22점의 작품을 선보인 ‘디지털 공명’전이 열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배은숙 퀼트전 ‘마마의 하루-절제의 아미쉬 미학’전이 내년 1월 15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열린다.

한땀 한땀...따뜻한 퀼트 매력에 빠지다

‘마마의 하루’ 배은숙 초대전...내년 1월15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빨강머리 앤’ ‘성탄절 하우스’ 등 눈길...“살아온 이야기 담고 싶어”

벽면에 걸린 대형 퀼트 작품(250×250cm)이 눈길을 끈다. 121개의 작은 조각 속에 담긴 하나의 이미지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한땀 한땀 바느질한 손맛이 느껴지는 따스한 작품이 전시장을



‘성탄절 하우스’

가득 채웠다. 다양한 퀼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마마의 하루-절제의 아미쉬 미학’전이 내년 1월 15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열린다. 규모 있는 미술관에서 퀼트전이 열리는 건 좀처럼 없었던 터라 이번 전시는 흥미롭게 다가온다. 특히 한겨울, 온기가 느껴지는 퀼트 전시는 따뜻함을 전하며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우리 전통 조각보처럼 절제와 검소의 생활철학을 담고 있는 퀼트는 남은 조각천을 겹겹이 연결한 작품으로, 절제된 생활과 자연으로 돌아가 사는 삶을 실천했던 ‘아미쉬’ 문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퀼트 작품은 다양한 문양과 이야기가 전해주는 즐거움과 함께 화사한 색채감을 만끽할 수 있다. 또 일일이 바느질한 작품이기에 고귀한 노동의 공력도 느껴진다.

전시장에서는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마마의 일상’ 연작과 ‘아미쉬 소녀’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며, 동화 속 주인공 공 ‘빨강머리 앤’과 ‘피터 래빗’과의 만남도 즐겁다. 또 즐거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지는 ‘성탄절 하우스’와 ‘행복한 가족들의 삶’, 화사한 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한희’ 등도 눈길을 끈다.

그가 퀼트 작업을 한 지는 20년쯤 된다. 어느 날, 예쁜 퀼트 가방을 갖고 싶었던 그는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받고 바느질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갖고 싶은 것을 만든다는 소박한 생각에, 정형화된 도안 대로만 작업을 진행했지만 “남이 하지 않은 창작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꿈틀거렸고 자신만의 시각을 담은 바느질 작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저는 작가도 아니구요 퀼트를 좋아해 열심히 바느질을 해 온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저의 삶, 저의 이야기를 퀼트 작업에 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작업실에서 동네 분들과 함께 바느질하며 느끼는 즐거움이 큼니다. 앞으로는 전시회도 자주 열 계획입니다.”

배은숙 초대전을 준비한 무등현대미술관 정승규 관장은 그의 퀼트 작품을 통해 ‘여성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가면 좋겠다는 마음을 내비쳤다.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인생’을 꿈꾸는 여성들의 도전과 일상에 대한 논의가 넘쳐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판화 속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박순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전, 27일까지 손길갤러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과 판화의 특별한 만남.’ 완성된 옷의 이미지를 상상하게 하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옷의 구상을 스케치하는 것이다. 이번 회화와는 달리 ‘의복’을 중심에 두고 자신의 감각, 생각,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 이미지를 시각화해 표현하는 과정을 통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기도 하다.

박순천 작가(조선대 미술대학 라이프스타일디자인학부장)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전이 오는 27일까지 광주 손길갤러리(동구 경양로 362-1)에서 열린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판화기법(목판화, 석판화, 동판화)을 사용해 제작한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박 작가는 ‘Composition’ 연작을 통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패션디자인과 관계된 조형적 요소를 디자이너의 미적 감각으로 표현해낸 작품들이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표현 기법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판화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이번 전시는 판화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본 시도이기도 하다.

그는 작가의 말에서 “이번 전시는 1990년대 이후 판화를 이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활용 양상을 작업 과정, 표현기법, 생산 방식 측면에서 살펴본 기획”이라며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순수한 활용과 확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표현기법의 다양화 등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성신여대 대학원(의류학 박사)과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졸업하고 이탈리아 마릴고니 의상예술학교, 세폴리 의상종합학교 등을 졸업한 박 작가는 제 23회 인토스토프 섬유패션 대전 우수상(독일) 등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회화학회 이사, (주)신원베스티벨리, (주)동광인터내셔널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Composition VI’

내년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할인 구매하세요

최대 40% 저렴...25일까지 선착순 100명 커피쿠폰

제14회 광주비엔날레(2023년 4월 7일-7월 9일) 예매 입장권 판매가 시작했다. 예매 입장권은 개막 전인 내년 4월 6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티켓정보 페이지와 티켓링크네이버 예매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광주비엔날레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D-100 기념(12월 28일 기준)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간 예매 입장권 구입자 대상으로 선착

순 1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예매 입장권은 행사기간 내 현장 판매 입장권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하다. 현장 판매는 어른 1만 6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0원이나, 사전 예매할 경우 어른 1만 2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3000원으로 최대 40%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